

실업뉴스

The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News
2019년 8월 14일 수요일 제782호



Enjoy
the Ladies'
Night

함께여서 좋았습니다!



www.okba.net Publisher : Jae Gyun Shin / Publication Mail Agreement No : 41140510
Return Undeliverable Canadian Address to :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169 The West Mall, Etobicoke, ON. M9C 1C2 Tel.(416)789-7891 Fax.(416)789-7834

최신 대형 복권

GOLD RUSH

복권 1 매로 최대 7 번 당첨될 수
있습니다! 145,000여 개의 \$60
상금!

- \$250,000 1 등상 5 개
- 당첨금 지급률 70%
- 평균 당첨률 3.52 대 1
- 2019년 7 월 15 일 출시



스포츠 베팅 한도

소매업자 여러분에게 OLG의 스포츠 베팅 한도를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소매업자 정책매뉴얼(Retailer Policy Manual) 제 4.13절에 스포츠 베팅 제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베팅 한도는 **업소 당, 스포츠 복권 상품 당, 고객 1인 당(또는 단체고객 당) 1일 \$100** 입니다. 이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소매업자 정책매뉴얼 제 8.8절에 명시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복권을 출력할 때는 반드시 고객이 입회해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OLG 는 DART (Data Analytics and Retrieval Technology) 시스템을 사용하여 복권단말기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이 신속한 모니터링 및 보고 능력은 저희 OLG가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있을 수 있는 업소를 직접 방문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OLG 는 스포츠 복권 상품 거래를 매일 감시하며, 베팅 한도가 초과될 경우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장의 복권 담당 직원이 이 정책을 숙지하고 절대적으로 준수하도록 하십시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 OKBA 회 장 : 신재균 (Jae Gyun Shin)
OKBA 부회장 : 송명현 (Myeong-Hyeon Song)
- 사업개발팀 : 이주녕 (Brian Lee) brianjn1108@okba.net
- 홍보팀 : 실장 김광일 (Ted Kim) tongilisysj@yahoo.com
- 디자인팀 : 현미영 (Mimi Hyun) mimihyun@okba.net
- 회계팀 : 김세환 (Justin Kim) accounting@okba.net
- 본부협회 : Tel (416) 789 - 7891 / Fax (416) 789 - 7834

- 이사회 : 이사장 이두승 / 부이사장 신영하
- 감사위원회 : 박영하 / 송구영 / 이만석
- 분과위원회 : 장학 분과 / 회칙 분과 / 특별사업 분과
상별분과 / 선거관리 분과
- 지구협회 : < 광역 토론토 지구협의회 >
Etobicoke 회장 이두승(416)895-1277
Newmarket 회장 금동진(905)836-6429
North York 회장 방성덕(416)221-7091
Peel 회장 이수봉(905)813-1333
Richmond Hill 회장 김대용(905)471-8079
Scarborough 회장 엄종호(416)759-4503
Toronto East 회장 김종범(416)363-9404
Toronto West 회장 김재숙(416)975-0365
Weston & York 회장 조용상(416)604-3116
- < 남서부 지구협의회 >
Brant County 회장 김종학(519)756-0099
Halton & Hamilton <공석>
London 회장 오세정(519)432-6672
Niagara Falls 회장 김흥기(905)354-1313
Waterloo 회장 최상겸(519)579-8130
Windsor 회장 윤문성(519)326-1832
- < 동북부 지구 협의회 >
Durham 회장 이현식(905)579-2500
Huronian 회장 배종민(705)436-2248
Kingston 회장 이강경(613)967-9998
Owen Sound 회장 허창훈(519)323-4311
Peterborough 회장 이경석(905)373-0569

Publication Mail Agreement No : 41140510
Return Undeliverable Canadian Address to :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169 The West Mall, Etobicoke, ON. M9C 1C2
Tel.(416)789-7891 Fax.(416)789-7834

www.okba.net

온라인을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C O N T E N T S

- 04 - 07 / 임페리얼 리베이트 3등급제 철폐
- 08 / 유람선상에 피어난 여성의 밤
- 09, 11 / 쿠쉬타르, 5년내 순익 2배 달성 목표
- 10 / 3차 정기이사회 새 회의실에서
본부협회 회장 선거 후보등록
- 12 - 13 / JUUL, 북미주 소매 직영 1호점 오픈
- 14 / 전국 주별 최저 임금 현황
- 15 / 2019 여성의 밤 주요 장면
- 16 / 스포츠 드링크 훑어보기
- 17 - 18 / 대학내 이색적 편의점, '코압'
- 19 / DIRECTORY
- 20 ~ 23 / K.B.A. 협동조합 8월 스페셜

사푸토 배달료 부과



사푸토가 오는 8월 17일부터 배달료를 부과합니다. 배달료는 1.99달러이며 이유는 휘발유 가격 인상때문이라고 합니다. 대금 청구서에 이 항목이 별도로 명기될 것입니다.

임페리얼 리베이트 3등급제 철폐

8월 7일 지구협회장회의 설명회 통해 발표



▲임페리얼의 담뱃갑포장통일화 대응 설명회에서 회사측 GTA영업 총책 리마 세르한 씨(오른쪽)와 중부 지역 동부지구 담당 매니저 주재일씨가 번갈아 가며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 고 프로그램(GO Program) 개선책

회원들에게 많은 혼란과 스트레스를 안겨왔던 임페리얼 토바코의 고 프로그램(Go Program)이 모습을 크게 탈바꿈한다. 복잡한 절차를 거칠 뿐 아니라 차등 리베이트 등급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마저 조장한다고 질타당했던 3등급 시스템이 간단히 2등급으로 조정됐으며 리베이트 지급 절차나 시점도 명쾌하고 단순화된 것이다.

귀가 번쩍 뜨일 이 소식은 지난 8월 7일(수) 긴급히 소집된 지구협회장 회의에서 임페리얼 지역담당 매니저 주재일씨의 설명을 통해 나왔다.

3차 지구협회장 회의가 개최된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지구협회장 회의가 열린 것은 임페리얼측의 요청에 의해서였다. 담뱃갑포장통일화 정책에 대비하기 위한 소매업소들의 준비사항과 일정에 관한 정보를 전하겠다는 회사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네번째 지구협회장 회의 자리를 긴급히 마련했던 것이다.

2016년 10월부터 시작된 고 프로그램은 많이 파는 가게와 판매량이 저조한 가게의 리베이트 양극화를 가속시킨다는 지적과 아울러 한달치 주문량의 리베이트를 3주 지나 받는 형식이다보니 해당 리베이트가 지난

주문량의 어느 몫에 해당하는지 명확치 않아 혼란이 컸다. 회사측도 이같은 부정적 여론을 모르지 않았으며 대대적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던 차에 연방 정부가 조만간 시행하려는 담뱃갑포장통일화 정책 (plain packaging)을 계기로 이에 화끈하게 손을 보기에 이른 것이다.

핵심은 현재의 3등급인 기본보장(guaranteed), 타겟(target), 초과목표

지금
전화주세요!



BROKERTTEAM
INSURANCE

박효진(Roland Park)
Cell.416-985-5287

Main : 905-770-8828
Fax : 905-770-8851
roland.park@brokerteam.ca

실험 단체보험

(growth target)에서 최저 단계인 기본보장 등급은 없어진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효과가 타겟 등급에서 일어난다. 다시 말해 주문량에 관계없이 제공하던 기본보장 등급의 효과가 타겟 등급에서 동일하게 발생한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현재의 기본보장 등급은 주문량에 관계없이 카톤 당 최저 리베이트 얼마가 주어지고 타겟 등급은 해당업소별로 평균 주문량을 감안해 목표치를 설정해서 이를 달성하는 경우 한단계 높은 리베이트를 준다. 그리고 타겟 목표치를 초과달성하면 추가로 더 많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초과목표 등급(growth)이다.

그런데 기본보장 등급을 없애고 타겟 등급에서 주문량과 무관한 기본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다만 설정해 준 목표치 주문량을 유지할 경우 기본 리베이트에 더해 보너스가 주어진다. 판매를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개념이다. 초과목표(growth target)도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는 없다. 형편대로 주문해서 기본 리베이트를 받는 것에 만족할 수도 있고 설정 목표량을 채워 추가 리베이트를 보너스로 받을 수도 있고 업주의 재량이기 때문이다. 더 편해진 것은 리베이트가 주문량에 따른 인보이스 발급 시 바로 반영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주문량에 따른 기본 리베이트를 대금 청구서에서 바로 공제(off)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주문한 다음달 3주차 쯤에서야 리베이트가 입금됨으로 인한 내역 파악의 어려움은 덜게 됐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보자. 어느 회원이 듀몰리에((du MAURIER) 20카톤을 주문했다. 듀몰리에 시리즈의 기본 리베이트는 카톤 당 4.75달러이다. 20카톤이면 95달러이다. 95달러가 20카톤 대금 청구서 총액에서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만 청구된다. 알아보기가 매우

편해진 것이다.

설명이 이 대목에 이르자 참석했던 지구협회장들로부터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간 받은 스트레스의 무게가 전해지는 순간이었다.

물론 이는 고 프로그램에 가입돼 있는 업주들에게 반가운 뉴스이다. 미가입 혹은 가입했다가 강등돼서 제외된 업주들과는 무관하다. 그렇지만 이들도 처신하기에 따라 고 프로그램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주씨의 설명이다. 평소 회사측 담당 직원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불필요한 논쟁이나 비난을 삼가는 것은 고 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손쉬운 분위기 조성 작업이다. 그리고 서신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한 후 가입을 희망하는 진정성을 반복해서 보이면 길이 열린다고 주씨는 강조했다. 예의바르고 진심이 담긴 요청에 대해 담당 매니저는 결코 도외시킬 수 없으며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상이 설명회 후반부에 설명됐던 고 프로그램 3등급 제도 개선책의 핵심 내용이다. 회의 초반에는 본래의 안건이었던 담뱃갑포장통일화 정책에 대한 대비책에 집중됐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담뱃갑포장통일화 대응

2012년 호주의 일명 평범한 담뱃갑 정책이 시행되던 전후해서 실험뉴스에 이 주제에 관한 기사를 쓰기 시작해 최근까지 수십번에 걸쳐 다른 주제만큼 대부분의 회원들이 숙지하고 있다. 예견했던대로 연방은 이미

일체형 연동 포스시스템
원슬루선과 함께하면 **빠르고, 간편하고, 저렴합니다!**

LCBO READY!!

- ALL LOTTERY TICKET SCAN
- DEBIT MACHINE 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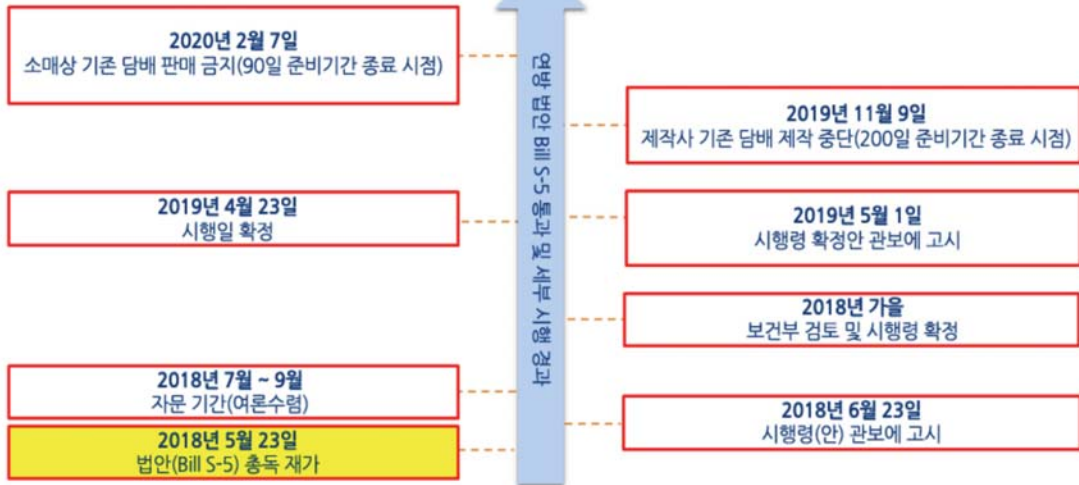
1SOLUTIONS
DATA CORPORATION

www.1solutions.ca / info@1solutions.ca Toll Free.1(888)554-7355 Korean(ext4) Direct Line.(905) 560-4511. (416)900-7533 Fax.1(888)554-0409

PLAIN PACKAGING

**Feb 7th
2020**

TIMELINE



일정까지 정해놓고 준수해야 할 지침도 발표를 한 상태이다.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과 향후 일정을 표로 정리해본다.

표에서 주목해야 할 일정은 두가지다. 올해 11월 9일부터는 제작사에서 현행 로고와 디자인이 들어간 모습의 담배 생산을 중단한다. 이는 11월 8일까지만 현행 담배를 소매업소에 공급할 수 있고 다음날인 11월 9일부터는 더 이상 소매업소에 공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음으로는 내년 2월 7일부터 소매업소에서 지금의 담배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평범한(plain)담배를 판매해야 한다. 2월 7일 및 이후에도 현행 담배를 팔면 위법이며 처벌이 따른다.

문제는 제작사에서 기존 담배 생산을 중단하는 11월 9일부터 소매상에서도 기존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는 내년 2월 7일까지 약 3개월의 과도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이다. 3개월 동안에는 기존의 담배들과 새로 등장하는 평범한 담배갑의 담배가 소매상에 공존하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11월 9일부터 담배 제조사는 현행담배 제작은 중단하며 소매상에도 더 이상 공급하지 못하지만 새로 제작한 평범한 담배는 공급하며 그래서 두 종류의 담배를 취급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임페리얼은 3개월 구간에서 8주 전략을 세웠다. 8주 동안에 순차적으로 기존 담배를 소매업소에 패키지로 공급한다. 이때 회사측이 세운 기본 개념은 2월 7일부터 금지되는 기존 담배 재고를 소진할 목적으로 소매업소에 떠넘기기식의 부담을 주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씨의 의하면 "과도기 3개월에 기존 담배는 앞서 설명한 3등급 차등 리베이트의 개선된 시스템이 적용될 것이며 인기 담배와 여타 전략적 차원의 일부 담배가 패키지로 꾸러져 업소별 맞춤형으로 공급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2월 7일 이후에 남은 기존 담배는 종류 불문하고 전량 반품을 받아주며 상응하는 대금은 업주 계좌로 환급해 준다. 다만 반품 시 유념해야 할 일은 납세필(tax paid) 노란 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반품해야 한다. 업주도 모르게 면세 또는 불법 유통담배가 섞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주의해야 한다. 한편, 임페리얼측은 과도기 동안에 주문되는 패

키지에 한하여 기존 담배는 무조건 카톤 당 1달러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통장으로 입금시킨다.

기존 담배에 관한 정책의 자세한 내용은 현재 회사측 영업직원들이 업소를 개별방문하며 상세한 내용을 설명 중에 있으므로 회원들은 이들 방문 시에 자신의 업소 실정에 합당한 주문책을 놓고 궁금한 점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

아담유 합동 법률그룹

Adam Yoo Stigler Nguyen & Associates

각 분야 전문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여러분의 법률 문제를 최선을 다해 해결해 드립니다.

교통사고, 개인 상해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교통 사고 후유증에 관한 최대 보상, 낙상, 정부 과실 보상 소송

교통위반 티켓

과속, Stunt Driving, 무보험, 신호 위반, 뺑소니 등 모든 교통법규 위반

형법

음주 운전, 폭행, 절도, 사기, 마약(Drug) 보석(Bail) 등 모든 형법 위반

- * 형법
- * 소액재판
- * 복권 판매법

- * 가정법
- * 세권, 세입자 분쟁
- * 담배 판매법

- * 민사소송
- * 주류 판매법
- * 회사 설립

* O.D.S.P. 신청(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 1년 이상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시 청구 가능.

"강력한 실력, 오랜 경력, 섬세함으로 모든 법률 문제 해결"

변호사 : Leonard Stigler, Mai Nguyen, Shiv Passi
 법무사 : Adam K. H. Yoo, David Song, Mark Ginz
 Kate N. Han, Hassanein Bhaloo, Earl Francis Dacara

T : 416.739.8887 / 647.891.8867 / F : 416.739.7559
 1018 Finch Avenue West, Suite #100, Toronto

다음으로 같은 과도기에 동시에 제공되는 평범한 담배 주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또한 기존담배처럼 주문하면 된다. 다만 예상하건데 기존담배 주문에서 빠진 부분에 집중해 주문할 것으로 본다. 과도기때 회사측도 기존담배 재고를 모두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업소별 특성에 따라 빠진 부분을 새 형태의 담배로 보충할 필요성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소매업소는 칩칙한 새 담배 보다는 가급적 기존의 담배를 넉넉히 갖추고 손님들의 트래픽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미지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라도 기존 담배 확보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평범한 담배갑 정책에 따른 담배 디자인이나 규격 등 상세한 정보는 이미 지난 실험뉴스 776호(5월 22일) '연방 담배갑포장 통일화 일정 확정'이라는 제하에서 소개한 바 있으나 몇가지만 재차 그림으로 소개한다.



현재의 뚜껑 개폐형이 모두 우측과 같이 탄창형으로 통일될 것이다. 일시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시차를 두며 1년 정도 경과하면서 탄창형으로 일원화된다고 한다.

담배개비 형태는 레귤러와 킹사이즈만 남기고 나머지 변형된 형태는 모두 사라진다.

이상으로 담배갑포장통일화에 따른 임페리얼측의 설명과 일반 정보를 소개했다. 임페리얼만이 아니라 앞으로 경쟁사들도 모두 각자의 대응책이나 정보를 회원업소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회원들의 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일반 정보이든 제조사별 정보든 업데이트되는 대로 실험뉴스를 통해 빠짐없이 전달할 계획이며 긴급을 요하는 정보는 협회 웹사이트에 먼저 올리도록 할 것이다. ■

onewholesale.ca
Smoke Shop / Headshop / Convenience Store Wholesaler

Authorized Zippo Dealer

원도매상

Order online by noon for **SAMEDAY SHIPPING**

*Ask for Free Zippo Display

BONGS, DAB RIGS, BUBBERS, RECYCLERS, HAND PIPES, E-CIG,
VAPORIZERS, GRINDERS, DUGOUTS, SCALES, SMOKING PAPERS,
ALL KINDS OF SMOKING ACCESSORIES
ZIPPO LIGHTERS, and ETC.

Business Hours

Monday to Friday
9.00am - 5.00pm
Saturday
9.00am - 2.00pm
Closed on
Sunday and Holidays

Cash & Carry Store
606 Magnetic Dr Torono, ON M3J2C4

onetradingltd@gmail.com
T. 416 661 6664 F. 416 661 6668

유람선상에 피어난

여성의 밤



▲ 도심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지구협회장들도 사진 한장

“3시간 너무 짧아...” 아쉬운 하선

2년의 공백을 깨고 부활한 여성의밤 행사는 예고한대로 크루즈 유람선 위에서 화려한 모습으로 거듭났다. 건축 재정을 위해 이벤트 행사를 당분간 자제한다는 취지하에 두차례를 쉬고 오롯이 회원들만을 위한 실속있는 행사로 다시 시작하자는 원칙을 정했다. 그리고 포맷 자체도 육상이 아닌 수상에서 치러보자는 과격적 아이디어가 연초에 나왔고 여론을 확인한 결과, 긍정적 반응 일색이었다. 다만 처음 시도하는 행사여서 추진하는 임.직원의 긴장감은 컸다. 다행히 참석한 회원들의 평가는 무척 호의적이었다. 입장 시 약간의 혼잡이 옥의 티였으나 첫 시도에서 빛어진 시행착오를 모두가 수긍하며 격려했다.

토론토 다운타운 온타리오 호수 선착장(207 Queen's Quay West)에서 마리포사 크루즈사가 운영하는 유람선이 출항한 것은 8월 15일(목) 저녁 6시 30분. 이후 하선할 때까지 3시간의 유람과 행사 여흥은 눈깜짝할 정도로 빨리 지나가는 시간을 아쉬워할 정도로 윤택했다.

다운타운의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먼거리의 회원들은 일찌감치 길을 나섰고 모처럼만에 남편들이 가게를 보고 여유있는 외출을 하는 때문인지 몇과 끼가 넘치는 패션(?)한 230여 명의 회원들은 제대로 놀아보자는 의지를 다지며 짧고도 화려한 휴가를 만끽했다. 5시 30분부터 승선해 입장권을 교부받고 미리 마련된 포토 존에서 홀로 또는 동료들과 기념 사진도 찍었다. 지정석이 아니어서 먼저 오른 회원 부터 편하게 자리를 잡았으며 어느 곳에 앉아도 호수와 도심 스카이라인을 감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협회와의 협력관계에 있는 소수의 VIP들과 경품을 협찬한 업체 관계자 등을 포함해 260여 명이 넘는 참석자들은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지며 무료로 제공하는 오픈바의 음료를 마음껏 마시고 부패로 차려진 저녁 식사를 즐기면서 대화를 나눴다. 입장할 때와 식사 시간 그리고 자유시간에는 생음악을 연주하는 4인조 밴드의 7080 음악을 즐기며 울동을 타고 몸도 흔들었다. 1년 쌓인 스트레스가 신나는 음악과 시원한 호수 미풍에 말끔히 씻겨나가는 순간이었다.

선착장에서 배가 떠나고 잠시 후 진행된 행사는 날씨가 8.15 광복절과
(18면에 계속)

(주)

하이쿨 텍

냉동·히팅

“신속하고 쿨한 서비스를 약속합니다!”

Canada Heating & Cooling Licensed Technician

HI-COOL TECH
에어컨 설치 문의 환영
김순석 (Peter Kim)

전문적인 기술자가 뭉쳐 기술 시너지
효과 (Synergy Effect)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 업소용 - 냉동, 히팅, 에어컨, 워킹콜러/후리저, 닥트, 케노피
- 가정용 - 냉장고, 히팅, 에어컨, 전기, 배관 외
- 상업용 - 공장, 상가 및 교회 건물관리 (냉난방 시스템 외)
- 세탁전문점 장비 일체 수리
- 자동차어, 수중모터 및 보트엔진 수리 외

장거리 출장수리 가능

신용과 책임을 우선 합니다

416.909.7114

[쿠쉬타르, 5년내 순익 2배 달성 목표]

2018년 순익/매출 US\$18억/600억



5년내 2배 수익 목표는 매출 성장과 인수합병의 유기적 조화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데 이 회사 브라이언 하나쉬 회장은 '야심적인' 이 목표를 핵심 비즈니스 역량 강화로 무리없이 달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쿠쉬타르의 2018년 순익은 미화 18억 달러이며 매출은 15%가 오른 591억 달러를 기록했다. 주가도 27.7%가 오른 3.32달러였다. 소매채널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편의점 사업체의 하나인 쿠쉬타르는 커피, 식품, 찬음료 등 푸드 서비스 프로그램 강화와 잘나가는 타국의 편의점 체인들을 무섭게 인수해 덩치를 키워 작년에는 두자리 수의 순익 성장을 기록해 업계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다.

친환경 정책이 북미주보다 앞서가는 유럽에서 쿠쉬타르는 전기자동차

(11면에 계속)

온타리오에서 서클케이(Circle K)로 간판을 교체한 북미주 편의점 지존인 쿠쉬타르(Alimentation Couche-Tard)가 향후 5년 내 현재의 순이익의 2배를 목표로 내걸었다. 이미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매장을 서클케이 간판하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제작년부터 국내에서도 퀘벡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 배너로 통일화 작업이 시작됐다.

3차 정기이사회 새 회의실에서

여성의밤 준비 위한 약식 지구협회장 회의 이어

새로 마련한 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7월 30일(화) 처음으로 이사회를 개최했다. 지구협회장 회의는 이미 한차례 가진 바 있었다. 이번 이사회는 회계연도상으로는 3차 모임이었다. 36명 이사 중 22명이 참석해 성원된 이날 이사회의 주요 안건은 신재균 본부협회장이 협회 안팎의 주요 동정을 소개하는 것이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조합 건물을 600만 불로 계약 성사할 때 이 금액은 지붕공사와 주차장 확대 공사 등 제반 개보수 비용을 감안하고 책정된 매입가였으나 전문 업체를 통해 드론을 띄워 지붕 상태를 살펴보니 상태가 그전대로 양호해 그다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지붕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건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차장 공사는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기존 협회 사무실이 있던 주차장은 세입자가 들어서면 이래저래 세입자가 사용해야 할 주차장이고 이미 실험 직원들과 조합 사무실 직원들이 지난 7월 19일에 한 공간으로 합쳐진 상황이니 조합쪽 짜투리 땅을 활용해 주차장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당초 개보수 비용에서 상당한 액수가 절약되기 때문에 은행 융자금도 감액 조정했다. 기존 협회 사무실 렌트비 확보액도 감안해서 220만 달러만 융자하기로 했으며 4% 고정 금리로 5년을 묶고 20년 상환에 향후 5년의 월평균 원리금 상환액은 13,295달러로 외환은행과 계약했다. (*협회사무실 렌트는 LA에 본사를 둔 놀이방 체인 마이짐(mygym) 본사가 계약 성사 단계 직전에 과도한 개보수 비용을 이유로 포기해 불발됐으며 새로운 세입자를 모색 중이다.)

한편, 조합 신영하 운영이사장도 조합 경영 현황과 자금 운영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했다. 8월 30일자로 조합 건물 소유권이 협회로 이전됨과 아울러 250만 달러 잔금을 협회측으로부터 받으면 80만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고 170만 달러의 여유자금이 있다. 신 이사장은 이 자금의 일부로 동북부쪽에 소규모 매장을 하나 오픈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 중이라면서 중대 사안이라 운영이사회에서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미 지난 4월 25일에 조합 경영 활성화와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모바일 건물 매각 대금에서 앞당겨 350만 달러(20만 달러 채무 상계 후 실제로는 330만 달러)라는 파격적 중도금을 지급했었다. 현재 조합은 은행 부채가 제로이며 여유있게 비즈니스를 꾸려가고 있다. 다만 이제 세입자 신분으로 전환돼 협회에 월세를 내야 하는 입장이라 과거 은행 금융비용의 부담과 앞으로 협회에 지불하는 월세액의 비교를 통해 매각이 잘된 판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양측은 조정을 거쳐 상호 윈윈하는 월 렌트비를 월 15,000달러 수준으로 잠정 합의했다.

2시에 시작한 이사회는 3시에 끝나면서 협회 이사회 역사상 가장 짧은 회의 시간 기록을 세웠다. 회의 후 자동이사인 지구협회장들은 따로 남아 목전에 다가온 여성의밤 행사 진행사항 보고를 받았으며 본부 협회로부터 행사 성공을 위한 몇가지 협조를 당부받았다. ■

본부협회 회장 선거 후보등록 8/19 - 8/28 10일간

본부협회 제 26대 정.부회장 선거를 치르기 위한 준비 작업을 위해 지난 8월 9일(금) 선거관리위원회의 두번째 모임이 미시사가 소재한 한인식당에서 열렸다. 간단한 식사에 이어 2시간이 넘게 일정을 확정하고 역할 분담을 논하는 등 세부적인 것들을 모두 점검했다. 이미 2017년 협회 자체 우편투표를 한번 치러본 경험이 있는데다가 당시의 신영하 선관위원장이 이번에도 다시 위원장을 맡아서 축적된 경험으로 거가 무리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3월 26일 1차 모임에서 선거일은 9월 19일(목)로 확정됐으며 이에 맞춘 세부 추진일정을 이날 모임에서 확정지었다. 그리고 후보 등록 공고를 동포 일간지 두 곳에 게시했다. 향후 선거일까지의 일정을 표로 정리해본다. ■

일시	내용	비고
8 / 19(월) - 8 / 28(수)	후보등록 공고	8/19일자 일간지에 공고하며 등록 기간은 10일
8 / 28(수)	후보등록 마감	28일 오후 4시까지 마감
8 / 30(금)	우편물 발송	● 투표용지/반송봉투/후보 프로필 등을 회원 업소로 송부 ● 동시에 후보 선거운동 시작
9 / 18(수)	우편투표 접수 마감	● 우체국 P.O.BOX에 9월 18일 까지 도달한 투표용지를 유효투표로 처리하고 접수 마감함.
9 / 19(목)	현장투표	오후 1시- 4시까지 열리는 임시총회장에서 현장 투표

〈9면에 이어〉 **쿠쉬타르, 5년내 순익 2배 달성 목표**

충전설비 네트워크 확대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150여개 전기충전소를 오픈한 가운데 올 회계연도 내에 200개 이상을 추가로 오픈하겠다는 계획이다.

퀘벡을 제외한 국내 모든 주에서 맥스(Mac's) 라는 상호로 통하던 쿠쉬타르는 B.C주에서는 이미 2015년부터 간판을 서클케이로 교체하기 시작했다. 맥스는 지난 1962년에 맥스 밀크(Mac's Milk)라는 간판으로 시작해 70년대 내내 기존 편의점 체인 맘앤팝(Mom&Pop)을 인수하며 매장 수를 확대해왔다. 당시는 대형유통채널들의 일요영업금지 정책이 살아있

던 때였으며 일요일이나 밤늦은 시간에 문을 여는 마트도 거의 없어 소비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다가 90년 들어 온타리오에서는 편의점 체인 베커스(Becker's Convenience)를 인수했고 동시에 미국 시장에서 맹렬한 인수 작업을 시작했다. 미국쪽은 기존의 서클케이 체인이 있었는데 이 체인 2천여개 매장을 인수해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다만 퀘벡쪽은 여전히 회사명과 동일한 쿠쉬타르라는 상호로 영업을 계속한다. 참고로 현재 쿠쉬타르의 전 세계 종사자는 133,000명, 매장수는 총 16,000여 개이다. (북미주 11,150, 유럽 2,700, 기타 전세계 2,150) ■



▲ 80년대 초 퀘벡 지역의 쿠쉬타르 모습. 오늘날에는 아시아, 중남미, 중동 등지에까지 라이선스 계약으로 베너 스토어가 오픈해 있다. (사진은 중국의 서클케이 매장 모습)

KCWA 캐나다한인여성회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2019 한인총회의 **법과 생활**

상식 진학 취업 길라잡이

2019년 9월 21일 (토) 오전 10시 ~ 오후 3시 30분

KCWA 배더스트 - 핀치 사무실
540 Finch Ave. W. North York, Bathurst-Finch HUB

- 사전등록 필수
- 간단한 스낵 제공
- 영주권자는 영주권카드 지참을 부탁드립니다.

토론토 경찰과 함께 하는 안전 점검 및 커리어 네트워킹 부스
(오전10시~오후2시)

공연
한카 드림합창단 (오후12시40분~오후1시)
소래 청소년 오케스트라 (오후2시40분~오후3시)

오전10시~오후12시

법대 진학정보 세미나
법대진학을 위한 최신 정보 및 재학생들과의 네트워킹

오전10시~오후12시30분

유언과 상속에 관한 법률
캐나다 한인 변호사들과 함께하는 법률정보 클리닉

*사전예약 필수 / 예약마감 (8월 30일)

오전11시30분~12시30분

일대일 상담서비스 (유언과 상속관련)
*사전예약 필수 / 예약마감 (8월 30일)

오후1시~오후3시30분

변호사직 취업 정보 & 네트워킹
법률관련 다양한 직종 소개와 법조인과의 네트워킹

오후1시~오후2시40분

캐나다 가정법 세미나
'알고보니 피해자, 어쩌다보니 가해자?' 캐나다 가정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

등록 및 문의: 전 화 : 416-340-1234 / 416-340-0838
이메일 : myoungsuk.joo@kcwa.net 웹사이트 : www.kcwa.net

미디어협찬
교차로, 리빙센스, 우먼파워
All TV, WITH, 갤러리아, KFT, 한국일보, 중앙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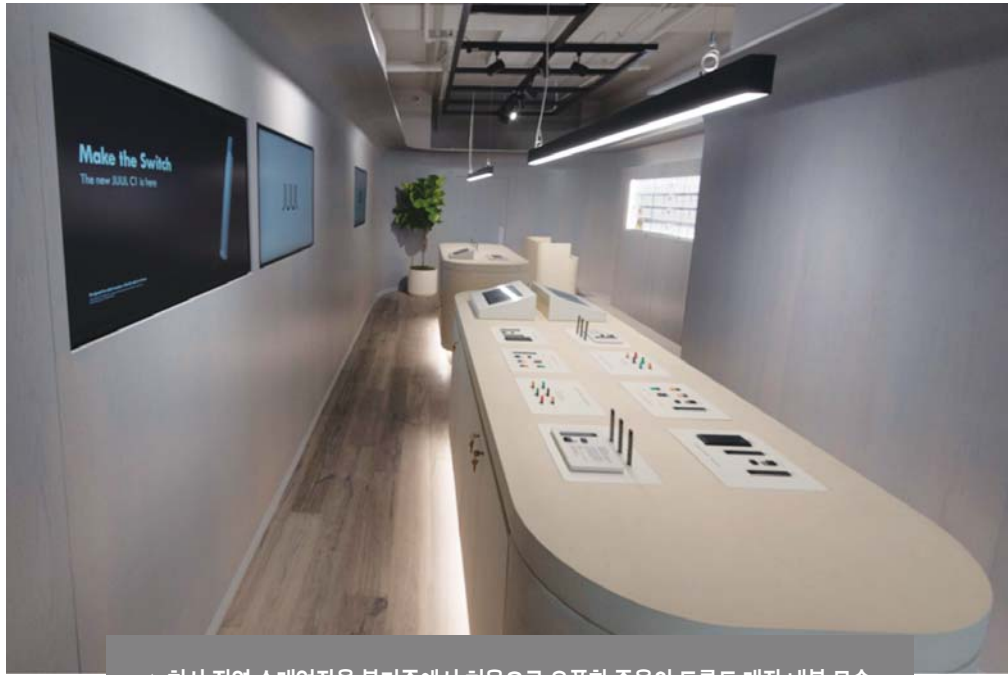
후원 재외동포재단 주 토론토총영사관

OKBA
부동산 캐나다, 해피 코리아
한카실버타임즈, 글로벌코리아 포스트

JUUL

북미주 소매 직영 1호점 오픈

“애플 매장 들어왔나?...”가우똥



▲ 회사 직영 소매업장을 북미주에서 처음으로 오픈한 쥬울의 토론토 매장 내부 모습. 전자담배의 애플사라는 애칭이 붙을 만하다.

엑상 전자담배의 지존인 쥬울(JUUL)이 지난 7월 29일에 토론토 다운타운(495 Queen Street West)에 직영 소매업소를 오픈함으로써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미국을 포함한 북미주 최초의 소매업소 1호점을 가지게 됐다.

십대 청소년들의 베이핑 열풍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회사가 직접 소매업소를 운영하는 시스템으로의 첫 신호를 올리는 일이어서 업계는 물론 일반 세인들의 비상한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연령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해야 함은 물론이다. 온타리오에서 전자담배를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은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업소 구조도 미성년자에게 진열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구성돼 있다. 신분증으로 연령확인을 받기 전에는 제품 진열 공간하고 손님 시선하고는 완전히 차단이 돼 있다.

입장이 허용된 손님은 마치 애플 스토어를 방불케 하는 모던하고 매끈한 분위기와 시설로 단장한 공간에 놓여진 근사한 테이블 위에 제품 구성 요소들인 본체(기기; 디바이스)와 액상 카드리지인 파드(pod)가 정갈

하게 진열된 모습을 감상하게 된다. 손님은 직접 제품을 만져보고 느낌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흡연을 테스트해볼 수는 없다. 실내 공간에서는 연기를 노출(vaping)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디어에 사전 공개한 자리에서 쥬울 캐나다 전무 마이클 네더호프씨는 성인 흡연자를 위한 교육적 공간 (educational venue)이 되도록 꾸며었다고 소개한 바 있다. 교육적이란 베이핑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손님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듯 보인다.

쥬울의 불과 1년도 안된 캐나다 진출을 생각하면 국내 최대의 전자담배 브랜드로 대체를 굳힌 것이 대단하다. 하지만 비판의 여론도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새로운 손님 세대를 위한 니코틴 중독을 확산시킨다는 비판이 거세다. 10대 청소년들의 베이핑 습관이 거의 배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인다는 통계가 제시됐다.

지난 2018년 5월에 연방 정부는 베이핑을 공식적으로 합법화하면서 국제적인 베이핑 브랜드들이 앞다퉈 캐나다 시장에 진입했으며 그 중 하나가 쥬울이었다. 쥬울은 그러나 기존의 한창 뜨던 쥘런형 전자담배까지 제

압하면서 현재 캐나다 전자담배 전체 시장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가히 독보적이라 하겠다. 캐나다 전역의 베이프 슝과 편의점 등 13,000개 이상의 소매업소에서 주울을 취급하고 있다.

주울의 대정부 담당 이사 닉 카디쉬씨는 회사가 미성년자의 베이핑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이들과 자사 제품의 선긋기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왔음을 호언했다. 카디쉬씨의 설명에 의하면 미성년자를 가려내기 위해 회사는 온라인 판매에서 제 3자(기관) 연령인증 시스템을 도입 시행하고 있고 월 평균 150여 업소를 상대로 합정단속을 한다고 한다. 거기다가 한 손님에게 특정 물량 이상 판매를 금지시키는 정책도 구사하고 있다.

만약 이런 단속과 조건 이행을 어기면 요주의 업소 목록에 올려놓고 특별관리하거나 심할 경우 보건당국에 명단을 통보하기도 한다. 앞서 말한 제 3자 연령인증이란 성인임을 손님이 입증하기 위해 은행 또는 국세청에 로그인하면 링크가 돼 있는 온라인 회사측이 성년과 미성년 식별만 할 수 있도록 두 기관이 정보를 제휴를 하는 방식이다.

회사측은 이처럼 미성년자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다고 역설하지만 이를 반박하는 입장 또한 만만치 않다. 위터루 대학 공중 보건학과 데이빗 해몬드 교수는 캐나다 10대 청소년들의 베이핑 증가율이 74%나 폭증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캐나다 16~19 세 청소년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한 영국 의학 저널에 발표한 바도 있다. 이 기간에 나온 결과는 2017년 미성년자의 8.4%가 베이핑 경험이 있었는데 2018년에는 14.6%로 늘어났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 발표는 주울이 캐나다에 막 상륙해서 지금과 같은 시장 싹쓸이가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은 기간이었음에도 증가세에 한몫했다는 징후가 보였다고 한다. 그 당시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주울은 세번째로 인기가 좋은 전자담배였다.

교수는 작금의 주울 매출 고공행진은 미국 시장에서의 트렌드를 비취볼 때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한다. 미국에서도 연구진들은 청소년들의 베이핑 증가는 70%에 육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7월 셋째주에 주울 중역들이 미국 의회 청문회에 소환됐다. 회사측이 청소년 시장을 목표로 제품 마케팅을 했는지 아닌지를 규명하는 청문회였다.

의원들이 회사측 내부 자료에 주목했는데 주울이 제품 홍보를 위해 소셜 미디어 활용 방안을 수립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였다고 한다. 또 베이핑 금연 교육을 위한 학교 재정 지원 프로그램 계획도 세웠는데 대형 담배회사들이 벌써 수십년 전부터 유사한 금연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는 이 프로그램을 취소시켰음을 알려주는 자료도 제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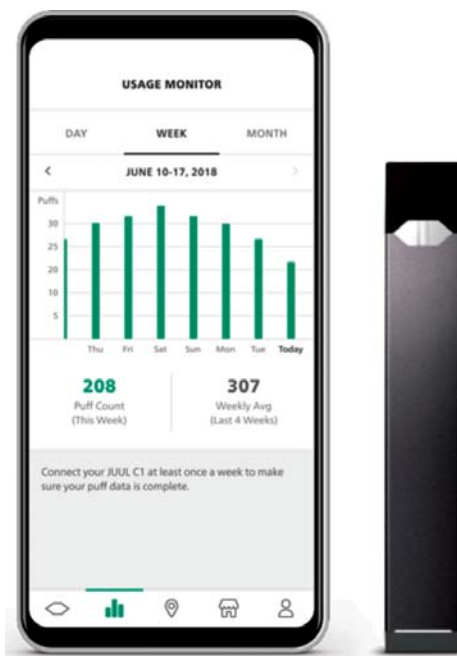
주울 캐나다의 중역들은 미국에서의 이같은 전략들이 캐나다에서도 시도된 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다만 연방정부가 베이핑 제품의 소셜 미디어 마케팅을 금지한 정책을 지지한 것은 확인됐다.

올해 초 연방 보건부는 공공장소, 업소, 미디어를 통한 전자담배 홍보를 금하는 몇가지 새로운 조치를 제시했다. 이런 공간은 청소년들이 제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POS를 통한 광고 또한 금지 대상의 하나다. 카디쉬 이사는 정부의 통제 조치가 일반 담배를 사려고 편의점을 찾는 성인 흡연자로 하여금 금연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자사 전자담배는 일반담배 금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는 전자담배가 인체에 덜해로운 대체

흡연물임을 강력히 믿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해몬드 교수는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못한다. 정부의 관측 제한 조치에 대해 흔쾌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주울이 아무리 미성년자 베이핑 차단을 강조해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다. “저런 종류의 관측과 광고들이 캔다가 있는 바로 옆에 전자담배가 위치하고 있음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태도다” 교수의 직격탄이다.

지난 6월 25일자로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은 조례를 통해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내렸다. 그 주된 이유가 바로 미성년자 전자담배 노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해몬드 교수는 이곳 캐나다에서도 저 정도 수준의 금지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보지도 않고 바람직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다. 평소 비판의 강도로 볼 때 의외로 온건한 모습이다. 파격한 통제책보다는 합리적 상식으로 접근하려는 균형감각의 소유자로 보인다. “우리는 명백하고 분명하게 법적 제도를 통해 제품 통제를 할 수 있다. 그냥 암암리에 사회적 압력 따위로 통제를 가하는 것보다 법제화를 통해 단속하는 것이 효과도 크고 실제로 가능하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 흡연자들에게 (금연을 유도할 수 있는 측면에서) 도움을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의 경우처럼 과도한 금지령을 내린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다만 미성년자의 접근을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



▲ 모바일 앱으로 연결된 JUUL C1 제품

자기 나라 미국에서도 아직 열지 못한 직영 소매업소를 남의 나라인 캐나다 최대 도시 토론토의 다운타운에 갓 오픈한 주울 직영매장은 현재 JUUL C1이라는 모델 제품을 판매 중이다.

그런데 이 제품이 회사하고 연결된 기기라는 점이 주목을 끈다.

모든 사용자들이 현재 이 제품을 통해 얼마나 니코틴을 소비하고 있는지 그 총량을 알려준다. 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접근 제한을 경고하기도 한다.

이게 모바일 앱으로 연결된 덕분이다. 기기를 분실하면 추적해서 찾을 수도 있다.

블루투스를 통한 새로운 모바일 앱과 연결시켜 제품의 기능을 시험하고 성능 업그레이드 하려는 시범 운영이 진행 중이다. 앱하고 짝을 이뤄놓으면 앞서 말했듯 니코틴 소비 용량은 물론 리얼타임으로 하루 몇 번 흡입을 했는지 수치도 나온다. 이는 일, 주, 월별로 체크할 수도 있다.

주울 캐나다 전무 네디호프씨 말을 한번 더 인용한다. “회사는 성인 흡연자에게 보다 많이 노출이 되도록 하며 미성년자에게는 어필하지 못하도록

(16면에 계속)

전국 주별 최저 임금 현황

1위 알버타 이어 온타리오 전국 2위로 높아



캐나다 주별 최저 임금, 정확히 말해 시급(minimum hourly wage)이 전국적으로 올해 들어 약간의 변동들이 있었거나 있을 예정이다. 뉴브런즈윅은 올 4월 1일부로 25센트가 인상돼 11.50달러가 됐고 B.C 주 는 12.65달러에서 13.85달러로 파격적인 인상이 있었다. 노바스코시아는 향후 3년간 매년 약 55센트씩 인상할 계획이다. 매니토 바는 오는 10월 1일 30센트가 오른 11.65달러가 될 예정이다. 금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준주별 현행 시급 및 향후 변동 사항을 표로 정리해본다. ■

◀ 금년 6월 1일 기준으로 캐나다 전국 주 및 준주별 최저 시급 현황

알버타	\$15.00	2018년 10월 1일자로 시행됐으며 인상 전에 파격적인 인상이라는 논란이 뜨거웠으나 신민당(NDP)가 득세하던 때라 무난히 관철됨. 그러나 올해 선거에서 연합보수당 제이슨 케니가 정권을 잡아 향후 최저시급의 지속적인 인상이 가능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B.C	\$13.85	2019년 6월 1일부터 현행 금액으로 인상. 1년 후인 2020년 6월 1일에 \$14.60, 2021년 6월 1일에 최소 \$15.20달러로 인상 예정
매니토바	\$11.35	2018년 10월 1일 현행 금액임. 오는 10월 1일 \$11.65로 인상 예정
뉴 브런즈윅	\$11.50	2019년 4월 1일 부터 현행 금액으로 인상. 향후 CPI와 연동해서 인상.
뉴펀들랜드/래브라도	\$11.40	2019년 4월 1일 현행 금액으로 인상. 향후 CPI와 연동해서 인상.
노스웨스트 준주	\$13.46	2018년 4월 1일 현행 금액으로 인상. 향후 특별한 계획 없음.
노바스코시아	\$11.55	2019년 4월 1일 현행 금액으로 인상. 향후 3년간 매년 25센트 인상 계획. 이후인 2022년부터는 인플레이션 연동 반영
누나부트 준주	\$13.00	2016년 4월 1일에 현재의 금액으로 인상 후 변동없음.
온타리오	\$14.00	당초는 올해 \$15.00로 인상 예정이었으나 작년 총선에서 보수당으로 정권 교체되며 \$14.00로 동결. CPI에 연동 반영 예정
P.E.I	\$12.25	2019년 4월 1일 현재의 금액으로 인상.
퀘벡	\$12.50	2019년 5월 1일 현재의 금액으로 인상.
사스캐츄완	\$11.06	2018년 10월 1일 현재의 금액으로 인상. 오는 10월 1일 \$11.32로 인상 예정. 이후 매년 CPI와 연동 반영
유콘	\$12.71	2019년 4월 1일 현재의 금액으로 인상. 향후 매년 CPI와 연동 반영

2019 여성의 밤 주요 장면



부페로 차려진 저녁 식사. 음식에 대한 평은 굿!



밴드 생음악을 들으며 호수 풍광 감상에 몰입 중



뉴마켓 금동진 회장과 백설공주 부인. 이번 행사에 베스트 드레서 상이 없어서 유감



행사 협조에 애쓴 지구협회장들과 본부협회 신재균 회장의 단체 기념 사진



전자담배 회사 blu 직원과 경품 당첨자가 함께



조합에서 제공한 한국왕복항공권 당첨 회원과 신영하 운영이사장의 기념 포즈



막판까지 아낌없이 돌아보자... 신명나는 댄스에 시간이 아쉬워.



스포츠 드링크 훑어보기



▲ 종합음료의 두 지존 코카콜라와 펩시의 대표적 스포츠 드링크인 파워에이드와 마운틴 듀 스포츠. 그러나 두 브랜드가 아무리 우열의 싸움을 하더라도 게토레이는 내놓고 하는 이야기다.

매출 증가, 신제품군에 절대적 의존

캐나다 편의점 채널에서의 스포츠 드링크 매출은 어느 정도나 될까? 스포츠 드링크가 편의점 매출에 꽤나 활기를 불어넣는 청량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꼭 스포츠 팬이 아니라도 잘 아는 사실이다. 닐슨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해 약 9,100만 달러라는 건실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이 자료에는 뉴펀들랜드 뭍은 빠져 있다. 다른 경쟁 판매 채널에 비해 편의점 채널은 2017년 대비 2%라는 양호한 성장을 보였다.

스포츠 드링크 매출액 중 8% 정도가 시장 출시 1년이 채 안된 신제품 매출에서 나온 것인데 다른 제품들의 성장률보다 4배 이상 높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신제품 매출 성장은 2017년에 177만여 달러에서 약 750만 달러 기록)

“이는 소비자들이 스포츠 음료에 있어서 확실히 신제품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 소비로 이어졌음을 증명한다. 따라서 제조사들이 시장 공략을 위해 창의적 신제품 개발에 더 몰두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코카콜라 영업전략담당 이사 제프 피치씨의 말이다. 요즘 코카콜라의 간판급 스포츠 드링크는 파워 에이드(Powerrade)이다. 이 제품은 무가당(無加糖; zero sugar), 무칼로리(zero calorie)를 내세우고 있는 일종의 전해질(電解質) 음료이다.

특정 회사 홍보를 위한 것은 아니지만 제조사들의 스포츠 음료 마케팅의 단면을 살피기 위해 대표적으로 코카콜라의 사례를 소개한다. 『2019년 ‘파워레이드 제로’ (Powerade Zero)시리즈를 보강해서 매출 확대를 계획한다. 대표적인 것이 포도향 가미 제품이며 용량은 710밀리리터이다. 또한 파워에이드 트위스티드에 블랙베리가 추가된다. 이 제품 또한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며 용량은 싱글 병 946밀리리터와 6개들이 591밀리리터 두 종류가 있다. 끝으로 파워에이드 울트라(Powerrade Ultra)가 한시적으로 출시돼 소비자들에게 큰 흥미를 자극할 것이다. 클래식 파워레이드에 비해 전해질이 25%가 더 많이 함유돼 있고 맛은 블루 레스베리 체리와 화이트 체리 두 종류다. 둘 다 용량은 710밀리리터이다.』 앞선 언급한 제프 피치씨의 설명이다.

스포츠 음료는 당연한 말이지만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대부분 소비한다. 대략 80%의 소비자가 49세 미만이다. 또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이 집중 소비 시즌이다. 소비층의 25%는 고학력층(대졸)이며 55%는 무

자녀이다. 편의점에서 스포츠 음료 매출 증대의 세가지 요령이 있다. 첫째 다양한 구색을 갖춘다. 둘째 신제품을 많이 갖춘다.(젊은층이 절대적으로 많이 찾기 때문이다. 이는 이들의 강한 호기심과 깊은 연관이 있다. 셋째 가격대와 품질의 다양한 차이를 갖추도록 한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그러나 스포츠 음료의 아이콘은 뭐라 해도 게토레이(Gatorade)다. 현재 펩시코 소유이며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 음료가 저마다 특장을 자랑하며 마케팅에 몰입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인간힘을 쓰지만 게토레이는 예외로 하고 나서의 이야기다. 미국에서만 스포츠 음료 시장의 75%를 이 음료가 차지하고 있으니 말이다. 다음 호 실험뉴스 교양상식 코너에서 역사와 현재를 소개한다. ■

〈13면에 이어〉 JUUL, 북미주 소매 직영 1호점 오픈

특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연결망 시스템을 가진 C1 제품은 현재의 흡연자 고객들에게 많은 귀중한 장점들을 제공한다고 믿는다. 소비자의 경험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앱 기능을 더 세련되고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하튼 모바일 앱과 사용자의 연관성을 이뤄내고 있는 점은 비즈니스 측면에서 창의적임에 분명하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몇 주는 계속 진행될 것이며 여론의 반응이나 의견 등을 참고하며 평가작업을 수행하고 품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캐나다 시장에서의 전자담배 진검승부는 현재까지 쥬울의 원승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에서 영원한 아성은 없다. 후발 주자 혹은 선발 회사들의 도전이 만만치 않다. 이래 저래 기울어가는 일반담배 시장, 거기다가 내년 초부터 이 나라 전역에 담배갑포장통일화 정책이 실시되면 프리미엄급 담배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해 보임에 따라 편의점 업주들은 전자담배 시장의 향배에 어느때보다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이다. ■

철저한 환경친화적 제품으로 대학내 이색적 편의점

코옵



캐백의 서브룩에 소재하는 서브룩 대학(University of Sherbrooke)내 특색있는 편의점을 소개한다. 코옵(Co-op)이라는 간판을 달고 모범적인 영으로 오랜 세월을 잘 유지 발전시켜 그 명성이 대단하다. 대학 자체의 역사성 못지않게 업소 또한 역사적 정취를 느끼게 한다. 업소 공동 창립자의 한 사람이자 종업원 이기도 한 미셸 가농씨는 32년째 일하고 있어 대학 당국으로부터 표창도 받았다.

수십년이 지나며 코옵의 매출은 초기의 몇천달러에서 1천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수준에 이르렀다. 결정적인 것은 2007년에 추가한 서점 비즈니스 덕분이다. 사실 서점과 편의점의 조화는 어울리지 않지만 대학이다 보니 가능한 것이다. 여하튼 이제 코옵은 대학에 단순히 입점한 개인 비즈니스 차원을 넘어 서점때문에 대학당국과의 파트너 관계로 격상됐다. 이 업소는 공정거래를 지지하는 하나의 교육 공간을 목표삼고 있다.

공정거래(fair trade)는 사회 발전과 환경 보호, 정당한 보수지급, 근로자와 제조사들의 권리 존중 등의 개념을 하나로 통합한 시금석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한다. 이 가게에서 파는 먹거리는 오직 공정거래하에 생산된 제품들로 커피, 차(茶), 초콜렛이 대표적이다.

고객 니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업소는 또 주라(Jura)라는 브랜드의 커피 머신을 장만했는데 특별한 맛의 커피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여름철에 고객들은 아이스 카푸치노와 슬러쉬도 즐길 수 있다.

2011년에 대학측은 캠퍼스내에서 개인소지용 생수병이 나도는 것을 막기 위해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소형 생수 판매를 금지했다. 이에 대해 코옵은 파트너 관계를 고려해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에 동참하는 의미로 흔쾌히 이를 받아들였다. 물론 과도기 동안 매출은 소폭 떨어졌다. 그러나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 커피 종류를 보다 다양화했고 다른 음료들 예를

들어 에너지 드링크를 보강했다. 여기다가 팝콘을 비롯한 로컬 특산 주전 부리를 추가했다.

변화는 쉽잖아!

이 업소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아마 방문객들의 하루 방문횟수가 아닐까 싶다. 사실 캠퍼스에서 하루에 10,000~12,000명의 사람들이 북적이고 움직이는데 이 업소의 위치는 메인 버스 정거장 바로 근처에 위치한다. 이는 업소 트래픽을 올리는데 결정적인 요소다. 여기에 880명이 거주하는 캠퍼스 기숙사가 또 하나의 보탬이 된다. 작년부턴 코옵은 커스 미닛(CAUS MINUTE)이라는 간편 먹거리 코너를 개시했다. 기성 식사대용품을 사가지고 기숙사에 가서 마이크로 웨이브 등을 이용해 데워 먹기만 하면 된다. 주로 스파게티, 라자냐, 마카로니 등이며 일인분에 4.78달러를 받고 있다. 마이크로웨이브도 한켠에 비치해놨다. 현장에서 바로 데워 바깥에 아무데나 앉아서 먹으려는 손님들이 있기 때문이다. 대학 캠퍼스이니 오히려 이런 장면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이 코너에서 제공되는 용기는 미생물 작용으로 분해되는 환경친화적(biodegradable)소재로 만들어져 있다. 심지어 일회용 나이프나 포크도 같은 소재로 만들었다. 철저한 환경보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머핀과 패스츄리들이 다 직접 가정용 스타일로 구워서 나오는데 포장하지 않고 제공한다. 쓰레기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다. 낮 시간에 못판 먹거리들은 코옵보다 더 늦게 영업을 하는 중앙 카페테리아에 팔린다. 한마디로 사람먹는 음식을 그냥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코옵은 저녁 8시에 문을 닫는다.

“우리는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 후각을 자극하는 작전을 쓴다. 오후 4시경이면 팝콘 기계를 돌린다. 뭔가 색다르고 변화를 시도하기에 쉽지가 않다.” 코옵의 편의점 파트 담당인 마농 파켓씨의 말이다. 그녀는

퀘벡에서 매년 가을에 열리는 편의점 박람회 'Le Salon des depanneurs du Quebec'을 꼬박꼬박 방문해서 새로운 아이템 발굴에 심혈을 쏟는다. 끊임없이 분위기가 뒀든 제품이 뒀든 변화를 주자는 것이다. 그래서 최신의 것에 집중 관심을 둔다. "편의점 관련한 아이템들이 한 곳에 모두 모여있고 공급사들도 한꺼번에 만날 수 있으며 반드시 새로운 뭔가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이니 매우 흥미롭다." 이 이벤트는 토론토에서 매년 열리는 컨비니언스 유(Convenience U & CARWACS)와 유사한 행사다.

지역 산물을 널리 알리자는 것도 코업의 우선 순위 전략 중 하나다. 담당 직원 르메이씨는 고객들에게 지역 신제품을 무료 시식이나 시음해서 구매력을 자극할 수 있도록 기회만 제공해준다면 어느 지역 회사 제품이라도 늘 환영받는다 고 말한다. 품목은 제한이 없다. 지역 특산 맥주일 수도 있고 특별한 맛의 너츠나 치즈일 수도 있다. 뭐가 됐든 다 통하는 것이 대학생이 손님이라는 사실이다. 이들은 밀레니얼 세대이며 따라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매우 강렬하다. "우리 손님이 맛만 보게 해달라, 누구라도 우리와 제휴할 수 있다." 르메이씨의 자신에 찬 말이다.

코업 직원은 모두 95명이다. 이 중 23명이 이 대학의 학생이다. 대학 당국과의 계약하에 매년 이 정도 인원의 학생 알바를 채용한다. 수업 시간 스케줄하고 충돌이 생기지 않게 근무 시간은 융통성있게 조정가능 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학생 자치 조직인 운영자문위원회와 협의도 한다. 학생 입장에서는 코업이 돈벌이 기회를 제공해주고 코업 입장에서는 주 고객층을 바로 같은 처지의 종업원이 응대하니 서로 윈윈할 수 있다. 고객의 니즈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트렌드를 반영하는 영업이 가능하다는 것은 큰 장점이 아닐 수 없다.

비즈니스에 확고부동한 경험을 축적한 경영진은 영업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만큼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고 한다. 캠퍼스의 제너럴 스토어로서 자부심을 잃지 않고 항상 젊은 분위기를 간직하는 것이 경영 모토다. 고객층의 절대 다수가 젊은이들이니 신선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모토는 충분히 공감이가다. 조만간 돈을 꽤나 투자해 업소 내 편의점 공간 1,100평방피트를 완전히 개보수할 계획이다. ■



K.B.A. 협동조합

■ K.B.A. 운영 이사장 : 신영하 (Youngha Shin)
K.B.A. 부이사장 : 심기호 (Kenny Shim)

■ K.B.A. 운영이사 (가나다 순)
김대영 (Dae-Young Kim)
송명현 (Myeonghyeon Song)
신재균 (Jae Gyun Shin)
이두승 (Doo-Seung Lee)
이만석 (Man Suk Lee)
허창훈 (Chang-Hoon Huh)

■ K.B.A. 감사 (가나다 순)
백사열 (Sah-Yeal Paik)
장해민 (Hae Min Jang)

■ K.B.A. 총괄부장 : 권혁선 (Hyuk Sun Kwon)
■ K.B.A. 사무장 : 배 줄리아 (Julia Bae)
■ K.B.A. 협동조합 사무실
Tel (416) 789 - 7544
Fax (416) 789 - 5013
■ K.B.A. 협동조합 매장
Tel (416) 867 - 1444

(8면에 이어)

유람선상에 피어난 여성의 밤

겹친데다가 모국과 일본간의 최근 불편하게 전개되고 있는 갈등을 마음에 품고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 만세" 삼창으로 시작됐다. 입구에는 대형 태극기도 세워뒀을 만큼 나름 진지한 분위기도 조성했다.

애국심으로 시작 분위기를 달군 행사는 본 부협회 신재균 회장, 이두승 이사장, 협동조합 신영하 이사장의 환영사로 이어졌다. 이어서 초대된 VIP 들과 협찬사 관계자들의 소개가 있었으며 바로 저녁 식사에 들어갔다. 회원들은 식사를 마치고는 갑판으로 올라가 저녁 노을을 감상하며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동료들과 사진을 찍고 정담을 나눴다. 친정어머님이나 시어머님은 호도 관광차원에서 무료 초대했는데 10여 명의 어머니들도 크게 즐거워하는 모습이었고 이에 임직원들은 큰 보람을 느꼈다.

3시간 행사의 중간 무렵에 모두들 기대하던 경품추첨이 시작됐다. 과거 1천여 명이 모이고 모국에서 가수를 초청하기까지 했던 행사와 달리 유람선 관광으로 치르는 축소판 여성의밤 행사였음에도 협찬 선 물은 꽤나 푸짐했다. 특히 임페일 토바코에서 4장의 한국 왕복항공권을 제공한 것은 이번 행사 참가 열기를 고조시키는 주요 동기의 하나가 됐다. 조합에서도 한국 왕복항공권 1매를 제공해 모두 5매가 된 항공 권은 그랑프리 상품으로는 유례없이 통 큰 선물이었다. 이밖에 K뷰티 사업 제휴사의 한 곳인 생그린 (SaenGreen) 에서도 고급 화장품을 20세트 제공했고 전자담배 회사 블루(blue)도 보석, 가방, 미용제품을 협찬했다. 과거 여성의 밤 행사때 빠지지 않고 협

찬했던 뷰젠 보석이 진주 목걸이를 두점 제공 했으며 협회와 거래하는 외환은행, 신한은행도 상품을 지원했다. 참가자들 전원에게 제공하는 기념품은 건강 식품 회사 우메켄과 생그린이 제품 샘플들을 협찬했다. 고급 화장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셀렉스씨에서는 기초화장품 5세트, 우메켄이 고가의 건강식품들을 제공했다. 5매의 항공권을 제외하고도 약 14,000여 달러의 경품을 놓고 40분 가까이 추첨이 진행됐으며 번호를 부를 때마다 환호와 한숨이 끊임 없이 교차하며 분위기를 달궜다.

이번 경품 행사는 별도의 레플릿 판매를 하지않고 정회원에 한해 발급 한 입장권 번호표를 함에 넣고 추첨했기 때문에 경품 모두가 비회원이 아닌 정회원에게만 돌아갔다.

경품 추첨이 마무리되고 배가 부듯가로 회항하면서 자유시간에는 분위기가 더욱 무르익었으며 하선 직전 부터 밴드의 댄스 음악에 맞춰 춤은 플로어에 많은 사람들이 신명나는 춤판을 벌여 여흥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짧은 시간이 아쉬운 하선을 하며 온타리오 호수에 스트레스를 훌훌 털어버린 회원들의 발걸음은 어느때보다 가벼웠다.

이번 행사의 주요 장면은 스카보로 정운모 회원이 수고한 동영상 촬영자료를 편집해 유튜브에 올린다. 또, 포토 존에서 찍은 기념사진은 협회 웹사이트에 조만간 올려서 원하는 회원들에게 사진으로 출력해 개별 전달할 예정이다. ■

■ KBA 협동조합

169 The West Mall, Etobicoke
 (협동조합 사무실) ----- (416) 789-7544
 169-175 The West Mall, Etobicoke
 (협동조합 웨스트몰지점) -----(416) 867-1444

■ 복권관련

AGCO (복권 판매 라이선스 관련) -----(416) 326-8700
 (800) 522-2876
 Fax (416) 326-5555
 OLG -----(800) 387-0104

■ 음료

Coca Cola Bottling Company ----- (800) 241-2653
 Pepsi Bottling Corp. -----(905) 568-7909
 (800) 387-8400
 Saint Jimmy's Coffee Service ----- (416) 250-9427

■ 우유

SAPUTO(Neilson Dairy) ----- (800) 663-4724

■ 스낵

Frito Lay Canada -----(905) 460-2414
 South Cove ----- (905) 829-3666
 Conagra Brands Canada ----- (416) 679-4200

■ 샌드위치

Classic group of companies ----- (866) 760-1926
 A Biz Gourmet(Shirley 부사장) -----(866) 760-1926

■ Meat Jerky

Great Canadian Meat ----- (905) 666-9395
 Conagra -----1- (888) 639-7868

■ 초코렛 / 캔디

Nestle Chocolate -----(800) 500-5634
 Mars Canada Inc -----(800) 565-0147
 Hershey Canada Inc. ----- (800) 268-1304
 Mondelez(Cadbury/Christie) ----- (855) 535-5648
 Wrigley Canada -----(416) 442-3298

■ 아이스크림

Nestle Ice Cream -----(905) 458-3600
 Ontario (800) 500-5634

■ ATM / Debit

Touch Cash -----1- (866) 391-3950
 Moneris Solutions ----- 1- (877) 789-5335
 1Solution -----1- (888) 554-7355

■ 잡지

Metro 360 ----- (416) 285-2050
 News Group ----- (905) 681-1113

■ 법률관련

변호사 이영동 -----(905) 272-4339
 Best Defence (아담 유) ----- (416) 739-8887

■ 금융 / 회계 / 재정 / 보험

Bank of Canada(위조지폐 관련문의) - (888) 513-8212
 신한은행 -----(416) 250-3550
 외환은행 -----(416) 222-5200
 이방록(회계사) -----(416) 221-2009
 박호진(보험중개인)----- (416) 985-5287

■ 언론사

한국일보 -----(416) 787-1111
 중앙일보 -----(416) 736-0736
 Globe and Mail ----- (800) 387-5400
 National Post ----- (416) 383-2500
 Toronto Star -----(416) 367-4500
 Toronto Sun ----- (800) 668-0786

■ 장비 설치 수리

종합캐쉬레지스터 -----(416) 622-2255
 프로캐쉬레지스터 -----(416) 804-4075
 Cool Air Cleaning ----- (416) 224-0020
 Hi Cool Tech -----(416) 909-7114

■ 광고 미디어 전문 대행 회사

Adapt Media ----- (416) 856-4466

■ 기타

Kocom -----(416) 769-3532
 DSC Digital System ----- (416) 255-6549
 David Health International ----- (647) 726-1010
 허바헬스 ----- (416) 435-5754
 365 Wholesale ----- (416) 931-9002
 Butterfly Fashion ----- (416) 785-5999
 The Best Inventory Service -----(905) 359-8560
 원도매상 ----- (416) 661-6664
 DavidWholeSale ----- (416) 419-3751
 78 Trading ----- (437) 777-7878
 Yeno Trading ----- (647) 967-6561
 용역 회사 Tyson Lee ----- (647) 545-0922
 Atlantic Prepaid Card ----- (888) 479-7779





Sincere Trading of KBA
West Mall Branch

SPECIAL SALE August



Fiji
24/500ml Reg.\$24.49 **Spe.\$18.99**
12/1L Reg.\$22.29 **Spe.\$16.99**
12/1.5L Reg.\$26.69 **Spe.\$19.99**

RedBull

24/250ml Original Only Reg.\$42.99 **Spe.\$39.99**
24/355ml Original Only Reg.\$60.99 **Spe.\$57.99**

39⁹⁹



Excluding
Java Flavour
Bottles

Monster

444 - 473ml
Spe.\$21.99



21⁹⁹



1¹⁵

7⁹⁵

1¹⁵

Lassonde

Del Monte 960ml All Flavours Reg.\$1.65 **Spe.\$1.15**
Oasis 960ml All Flavours Reg.\$1.65 **Spe.\$1.15**
Fruite 2L All Flavours Reg.\$8.95 **Spe.\$7.95**



1⁹⁹

2³⁹

3⁸⁹

McCain

French Fries 900g Reg.\$2.69 **Spe.\$1.99**
Xtra Crispy Fries 650g Reg.\$3.09 **Spe.\$2.49**
Premium Super Fries 650g Reg.\$3.09 **Spe.\$2.49**
Xtra Crisp Seasoned Fries 650g Reg.\$3.09 **Spe.\$2.49**
Deep'n Delicious Cakes 510g Reg.\$4.79 **Spe.\$3.99**
Deep'n Delicious Fruit Pies 680g Reg.\$4.79 **Spe.\$3.99**
Delicious Cream Pies 400g Reg.\$4.79 **Spe.\$3.99**
Pizza Pocket 3pack Reg.\$3.49 **Spe.\$2.49**



3⁵⁹

2⁷⁹

Sara Lee

Cheese cake 538g Strawberry & Cherry Reg.\$4.99 **Spe.\$3.59**
Oven fresh Pies 1.04kg All Flavours Reg.\$5.29 **Spe.\$3.59**
Pound Cake 304g Reg.\$3.59 **Spe.\$2.79**
Cream Pies 55g - 765g All Flavours Reg.\$6.99 **Spe.\$4.69**



Vidal Candy

1.2kg All Flavours Reg.\$7.49 **Spe.\$6.49**

6⁴⁹

4¹⁹

C.B Powell

Blue Diamond 170g All flavours Reg.\$6.89 **Spe.\$4.19**
Blue Diamond 12/43g All flavours Reg.\$21.49 **Spe.\$13.99**



13⁹⁹



1⁹⁹

Kelloggs

Pringles 148g - 156g
All Flavours
Reg.\$2.39 **Spe.\$1.99**



Mondelez

Chips Ahoy 300g All Kinds Reg.\$3.25 **Spe.\$2.99**
Peek Freens 300g All Kinds Reg.\$3.25 **Spe.\$2.99**

2⁹⁹

2⁹⁹



Cadbury

Cadbury King Size 66-90g
All Kinds Reg.\$34.59 **Spe.\$33.15**
Cadbury Singles Size 32-60g
All Kinds Reg.\$23.99 **Spe.\$22.99**

22⁹⁹

33¹⁵



Regal

Popeye Candy Sticks Reg.\$10.99 **Spe.\$9.69**
Dubble Bubble Tub Reg.\$15.69 **Spe.\$13.79**
Baby Bottle Pop Reg.\$22.59 **Spe.\$20.29**

13⁷⁹

20²⁹

9⁶⁹



Conagra

Chef Boyardee 411g-425g
All kinds Reg.\$1.69
Spe.\$1.09

1⁰⁹



Hunts

Hunts Pasta Sauce 680ml
All Flavours Reg.\$1.99
Spe.\$1.19

1¹⁹



SPAM

Spam Luncheon Meat 340g
All Flavours Reg.\$3.29
Spe.\$3.09

3⁰⁹



C.B Powell

Sugar Twin Packets 50's Reg.\$1.49 **Spe.\$1.39**
Sugar Twin Packets 100's Reg.\$2.85 **Spe.\$2.59**

1³⁹

2⁵⁹



C.B Powell

Stagg Chili 425g
All Flavours Reg.\$2.85 **Spe.\$2.55**

2⁵⁵



Mr. Noodles

Cups 12/64g All Flavours Reg.\$10.65 **Spe.\$9.65**
Flats 24/85g All Flavours Reg.\$7.49 **Spe.\$6.99**
Bowls 12/110g All Flavours Reg.\$15.69 **Spe.\$14.69**

9⁶⁵

6⁹⁹

14⁶⁹

1²⁵

Clover Leaf

Brunswick Seafood Snacks 92g - 100g All Flavours Reg.\$1.55 **Spe.\$1.25**
Brunswick Sardines 106g All Flavours Reg.\$1.35 **Spe.\$1.19**
Value Added Tuna 85g All Flavours Reg.\$1.65 **Spe.\$1.45**
Skipjack Tuna 170g All Kinds Reg.\$1.99 **Spe.\$1.45**
Premium light Yellow tuna 142g All Kinds Reg.\$2.19 **Spe.\$1.69**





4⁹⁵

Bertolli

Olive Oil 250ml Classico & Extra Light
Reg.\$3.55 **Spe.\$3.19**
Olive Oil 250ml Extra Virgin
Reg.\$3.75 **Spe.\$3.29**
Olive Oil 500ml Classico & Extra Light
Reg.\$5.25 **Spe.\$4.95**
Olive Oil 500ml Extra Virgin
Reg.\$5.55 **Spe.\$4.95**



19⁹⁹

Redpath

Sugar 10/2kg
Reg.\$23.99 **Spe.\$19.99**

4⁵⁹



5³⁵

Billy Bee

Upside Down Squeeze 375g Reg.\$5.59 **Spe.\$4.59**
White Bear 375g Reg.\$5.59 **Spe.\$4.59**
White Squeeze Beehive 500g Reg.\$6.35 **Spe.\$5.35**



13⁷⁹

2³⁹

Nestle Purina

Wet Cat Fancy Feast 24x85G Reg.\$16.39 **Spe.\$13.79**
Friskies Cat Treats 170g Reg.\$2.69 **Spe.\$2.39**

1⁵⁹



3²⁹

2⁴⁹

Smuckers DLM

PUP-peroni 75g All Flavours Reg.\$1.79 **Spe.\$1.59**
PUP-peroni 158g All Flavours Reg.\$2.75 **Spe.\$2.45**
Jerky Treats 170g All Flavours Reg.\$2.75 **Spe.\$2.49**
Alley Cat 2kg Reg.\$3.69 **Spe.\$3.29**
Meow Mix Original Choice 500g Reg.\$2.25 **Spe.\$1.89**
Meow Mix Original Choice 2kg Reg.\$6.49 **Spe.\$5.39**
Milkbone 113g All Flavours Reg.\$1.85 **Spe.\$1.59**



Always

Always Ultra Slender w/ Flexi-wings 18's	4.69	3.95
Always Ultra Regular Thin w/ Flexi Wings 10's	3.09	2.95
Always Ultra Overnight w Flexi Wings 14's	4.69	3.95
Always Ultra Regular w/ Flexi Wings 18's	4.69	3.95
Always Thin Ultra Long w/ Flexi wings 16's	4.69	3.95
Always Ultra Regular 22's	4.69	3.95
Always Thin Maxi Regular w/Flexi wings 10's	3.09	2.95
Always Maxi Regular w/Flexi wings 18's	4.69	3.95
Always Maxi Overnight 14's	4.69	3.95
Always Ultra Thin Long w/ Flexi wings 14's	4.69	3.95
Always Ultra Thin Reg 16's	4.69	3.95
Always Ultra Thin Long 20's	4.69	3.95

ALWAYS RADIANT INFINITY REGULAR PADS

Flexi Wings 12pk	4.69	3.95
Flexi Wings 16pk	4.69	3.95
Reg 64pk	4.69	3.95

ALWAYS THIN/MINCE FLEXI-STYLE

Pantiliners 60's Unscented 60pk	4.69	4.09
---------------------------------	------	-------------

Tampax

Regular 10's Reg.\$16.89 **Spe.\$15.19**
Super 10's Reg.\$16.89 **Spe.\$15.19**
Super Plus 10's Reg.\$16.89 **Spe.\$15.19**



15¹⁹



19⁴⁹

17⁹⁹

Cascades

April Soft Bathroom Tissue 4's Reg.\$21.49 **Spe.\$19.49**
Fiesta Paper Towel 2'S Reg.\$19.99 **Spe.\$17.99**



West Mall Branch

169 The West Mall, Etobicoke
T(416)867-1444 / F(416)789-5013

Business Hours

Mon. 06:30 - 17:00
Tue. 06:30 - 17:00
Wed. 06:30 - 17:00
Thur. 06:30 - 17:00
Fri. 06:30 - 17:00
Sat. 06:30 - 16:00
Sun. 11:00 - 17:00



STAGE 1



BLU ASSORTMENT-PODS STARTER KIT

device, charging cable and
two pods(tobacco & menthol)

소매마진 25%

SPECIAL OFFER

\$17.99

BLU ASSORTMENT-PODS

POD PACKS

available in both 24mg/ml
and 48mg/ml NIC strength

\$12.99 (MSRP)



WARNING:
This product contains nicotine.
Nicotine is an addictive
substance.

WARNING:
This product contains
nicotine. Nicotine is an
addictive substance.

WARNING:
This product contains
nicotine. Nicotine is an
addictive substance.

WARNING:
This product contains
nicotine. Nicotine is an
addictive substance.

WARNING:
This product contains
nicotine. Nicotine is an
addictive substance.

WARNING:
This product contains
nicotine. Nicotine is an
addictive substance.



**STARTER KIT
SRP
\$35.99**

MYLÉ[®]

Nicotine Delivery System

The Better Vape.
Canadian made e-liquid.



**PODS
SRP
\$19.99**



**10 FLAVOURS
AVAILABLE!**

19+

WARNING: This product contains nicotine. Nicotine is an addictive substance. Use of nicotine during pregnancy may harm the fetus. **AVERTISSEMENT:** Ce produit contient de la nicotine. La nicotine mène à la dépendance. Si elle est utilisée pendant la grossesse, la nicotine peut être nocive pour le fœtus. **WARNING:**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for use by children, persons under legal smoking age, persons with breathing or heart disease, diabetes, high blood pressure or those who suffer from respiratory conditions such as asthma or those who take anti-depressant medications. The product is intended for use with MYLÉ e-liquid Pods containing nicotine. Nicotine is addictive and can increase your heart rate and blood pressure and may cause dizziness, weakness and headache. Inhalation of this product may aggravate existing respiratory conditions. This is not an eating/smoking product. **KEEP OUT OF REACH OF CHILDREN AND PETS. TENIR HORS DE PORTÉE DES ENFANTS ET DES ANIMAUX DE COMPAGNIE.**





Doritos XL 2/\$7⁵⁰
 (행사 기간 : 8월 4일 - 10일)



Lay's XL 2/\$7⁵⁰
 (행사 기간 : 8월 11일 - 9월 7일)

Single Serve



**Lay's / Doritos
 Miss Vickie's
 Smartfood**
2/\$3
 (행사 기간 : 8월 4일 - 31일)

Convenience Food



Spitz 2/\$4
 (행사 기간 : 8월 4일 - 31일)

2019 8.4~8.31

Frito Lay Canada에서는 2019년 8월 4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클럽 골드 회원, 플래티넘 회원, 다이아몬드 회원에게 스페셜을 실시하오니 방문하는 판매 담당자 또는 드라이버에게 문의하세요.
 4주 한정기간 동안 프로모션이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스페셜 상품들은 OKBA 프로그램 스토어에도 적용됩니다.



- 최소 주문량 \$50
- 다양한 제품 오더 가능 (Single Serve, Take Home, Convenience Food, etc)
- 직접 재고 관리 가능
- 필요할 때마다 주문 가능 (무료 배달/주문 후 이틀안에 배달 완료)
- 충분한 유효기간 (창고에서 직접 포장)
- Single Serve는 Snack to you를 통해 주문 가능합니다.

Online at snackstoyoucanada.ca or Phone 1-866-404-8881

Happiness is simple™